

研究圖書館 藏書의 量的 質的 評價에 관한 分析的 考察

유 소 영*

<目 次>

I. 序論	servation)에 의한 評價
II. 藏書評價의 意義	4. 書誌와의 對比체킹에 의 한 評價
III. 藏書評價의 目的과 必要性	5. 利用者의 意見調查에 의 한 評價
IV. 藏書評價의 基準	6. 資料의 利用調查에 의한 評價
V. 藏書評價의 諸方法과 評價 基準에의 接近性 分析	7. 文獻配達能力測定에 의한 評價
1. 統計에 의한 評價	
2. 基準(Standards)의 適用 에 의한 評價	
3. 書架上의 觀察(Direct ob-	VII. 結論

I. 序論

우리나라에서 圖書館을 近代的 概念으로 認識하기 시작한지도 四半世紀를 헤아리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研究圖書館은 他種의 圖書館에 비교하면 크게 發展을 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大學들은 1955年 이후 大學設置基準令에 의하여 形態的인 面을 이미 갖추고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他種의 도서관들에서 보는 外形的인 面, 특히 수적으로 절대부족이라는 基本線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그러나 研究圖書館의 內實의 面을 살펴 볼 때 利用對象者들에게 충분한奉仕를 할만한 藏書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圖書館이 매우 적을 것이라는 意見이 모아질 것이다. 또 圖書館藏書가 充實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圖書館

* 韓國에너지研究所 技術情報室 先任技術員

藏書도 實은 그 圖書館이 속한 研究機關 혹은 大學의 명성과 역사를 두고 어림짐작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藏書에 대한 評價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具體的인 調查結果로 얻어진 資料가 없는 것이다. 뿐 아니라 藏書評價에 관한 研究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圖書館의 實際를 學文의으로 뒷받침하고 그 必要性을 불러 일으키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형편에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의 大學은 1970年代 末부터 文教政策上 量的으로 急成長하고 있다. 그 量的인 行為에 대하여 內實面에서 보조를 맞추기 위한一面은 圖書館의 內容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圖書館의 內實을 확충하는 方法은 간단하게豫算을 많이 투입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圖書館豫算이란 항상 부족하게 마련인 것이 실무자들의 意見이다. 더 나아가 현재의 大學들은 圖書館을 規模가 작은 圖書室의 運營과 같은 次元에서 運營할 수 없는 단계가 되고 있다. 大學의 定員이 늘고 單科大學은 綜合大學으로 유수한 綜合大學은 大學院 중심의 大學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圖書館學은 애초의 출발부터 投資와 利潤을 면밀하게 計算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企業經營 혹은 一般經營에서 圖書館의 運營原理를 도입·적용하려고 시도한 西區의 圖書館運營理論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터이다.

이 時點에서 우리가 圖書館運營을 보다 組織的으로 시도하지 않고는 圖書館自體로서 낭패일 뿐만 아니라 圖書館이 속한 母機關의 發展에 큰 타격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러므로 本稿는 圖書館을 이루는 諸要素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인 資料의 運用을 效果的으로 하기 위하여 반드시 實施하여야 하는 藏書評價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다음의 제Ⅱ장에서는 藏書評價의 語義的인 定義를 다루고 제Ⅲ장에서는 藏書評價의 目的과 必要性을 論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藏書評價를 實施할 때 어떠한 基準에 對比하여 圖書館藏書를 評價할 것인가에 대하여 記述하고 제Ⅴ장에서는 현재까지 試圖되었던 藏書評價方法을 소개하고 각각의 評價方法이 앞에서 논의된 評價의 目的과 基準에 비추어 볼 때合理的인 方

法人가 아닌가를 分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結論에서는 本稿의 論旨를 要約하고 바람직한 藏書評價方法을 추천하고자 한다.

II. 藏書評價의 意義

圖書館學에 있어서 評價(Evaluation)¹⁾란 *The Librarians' Glossary*에 의하면 “어떤 主題의 文獻에 공헌하는 作品의 價值를 測定하는 것”이라고 定義하여 事物의 價值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價值라 함은 “물건의 値, 効用”²⁾ 또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意義나 重要性 叫워”³⁾라는 뜻으로 評價의 對象이 되는 物件의 量이 아니라 質을 測定하는 말임을 나타내고 있다.

Paul H. Mosher도 “Evaluate”란 英語單字는 어떤 事物의 價值를 결정한다는 뜻의 “Evaluer”라고 하는 佛語用語에서 유래한 것으로 藏書에 있어서 “Evaluate”는 藏書의 質(Quality)에의 接近과 測定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

그러므로 圖書館藏書⁵⁾에 있어서 評價란 圖書館藏書의 質을 測定하는 말로 定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II. 藏書評價의 目的과 必要性

藏書評價는 “資料選擇政策遂行의 成功與否를 判斷하기 위하여”⁶⁾ 실시한다. 資料選擇政策은 圖書館의 目的에 一致하는 選擇을 하기 위하여 일반적

1) Harrod, L. M. *The Librarians' glossary of terms used in librarianship, documentation and the book crafts, and reference book*, London, Andre Deutsch, 1977. p. 314.

2) 동아출판사 편집부 편. 〈신콘사이스 국어사전〉, 서울, 同社, 1980, p. 28.

3) 한국어사전 편찬위원회 편. 〈대국어사전〉, 서울, 玄文社, 1976.

4) Mosher, P. H. Collection evaluation in research libraries : the search for qualities, consistency and system in collection development. *Lib. Res. & Tech. Ser.* V. 23, N. 1(Winter, 1979) p. 16-17.

5) 圖書館 藏書란 표기는 本稿에서 편의상 圖書 문단 아니라 圖書館 所藏資料를 總稱하는 Library Collection, Library holdings, Library resources의 번역어로 사용한다.

6) Gardner, R. K. *Library Collections : their origin, selection an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1981. p. 233.

으로 文書化된 項目으로 定하여, 資料選擇者들이 그들의 偏向이나 嗜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藏書評價는 圖書館의 目的에 一致하는 資料選擇을 하였는가, 즉 利用者 奉仕를 成功의으로 遂行하는데 필요한 資料構成을 하였는가 檢討하기 위한 것이다.

George S. Bonn은 藏書評價란 “圖書館의 目的과 目標, 使命 혹은 母機關의 目的과 目標, 使命에 대하여 圖書館이 存在하는 理由가 되는 圖書館 任務를 염두에 두고 評價되어야 하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⁷⁾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것도 역시 圖書館의 藏書評價는 圖書館의 存在理由 즉 ‘利用者奉仕의 成功的 遂行’을 할 수 있는 藏書인가 판단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하겠다. 그는 또 “評價되는 藏書에 대해서 利用者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圖書館의 目的이나 使命의 見地에 비추어 가장 接近한 評價”⁸⁾라고 갈파하므로써 圖書館藏書評價의 目的是 利用者의 立場을 主體로 하는, 利用者의 要求充足을 위한 資料의 所藏程度를 測定하는데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研究圖書館의 경우 利用者奉仕는 利用者들이 必要로 하는 文獻의 提供을 一次的 目的으로 하며 利用者들이 要求하는 文獻을 효과적으로 提供하기 위하여는 効率的 장서운영이 필요하고 이것은 藏書의 活用性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研究圖書館의 藏書評價의 目的是 또 藏書의 活用性 測定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F.W. Lancaster는 圖書館藏書의 質에 대한 궁극적인 評價는 藏書의 利用의 範圍와 形態(mode)에 있다⁹⁾고 말하고 藏書自體에 치중하기 보다 活用性에 치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藏書評價의 意義와 目的을 명료히 하였다. 다음으로 藏書評價가 必要한 理由에 대하여 檢討하기로 한다.

圖書館藏書構成은 G.S. Bonn의 표현을 빌리면 “거의 전적으로 收書政策, 收書節次를 포함하는 收書프로그램, 특히 중요하기는 資料選擇의 方法에 좌

7) Bonn, G.S. Evaluation of the collection. *Library Trends*. V. 22, N. 3 (Jan. 1974), p. 266.

8) Bonn, G.S. Ibid. p. 279-280.

9) Lancaster, F. W.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library services*. Washington D.C., Information Resources Press, 1977. p. 178.

우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그러므로 圖書館의 藏書藏價는 항상 정확하게 原因(資料選擇制度)이 結果(藏書의 質에의 결정적인 變化)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資料選擇에 대한 評價도 되는 것이다.”¹⁰⁾ 아울러 藏書評價의 目的이 궁극적으로는 藏書에 대한 利用者要求充足의 實現程度, 藏書의 活用性의 評價에 있다고 한 것을 유념 할 때 현재의 資料選擇이, 利用者들이 要求하는 資料를 수입하지 않고 있거나 이미 수입한 藏書 중에 利用者들이 必要로 하지 않는 資料가 많다면, 다시 말하여 資料選擇政策에 일치하지 않는 選擇이 過去에 있었거나 現在에 일어나고 있다면 이를 修正하여 바르게 하여야 할 것이며 이미 所藏된 資料는 廢棄하여야 할 것이다.

藏書評價는 이와같이 資料選擇의 非適切性을 修正하고 不必要한 資料를 廢棄하거나 자주 利用되지 않는 資料의 別途保管의 基準을 提供한다.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을 効果的으로 또 效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하여는 그 시스템의 目的에 맞추어 일을 計劃하고 그 計劃를 實踐에 옮겨 遂行한 다음遂行의 結果를 評價하므로써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였는가 검토한다.¹¹⁾ 評價結果 目的達成에 위배되는 錯誤가 있었다면 이를 다시 計劃의 段階로 feedback하여 再計劃하고 다시 遂行과 評價의 段階를 반복하게 된다.¹²⁾ 이 때 再計劃의 基準을 前段階의 評價에서 얻게 된다. 資料選擇의 非適切性이나 廢棄의 必要性을 具體的으로 확인하는 藏書評價의 段階는 圖書館藏書의 運營을 効果的으로 또 效率的으로 運營되어야 하는 시스템으로 볼 때 꼭 必要한 過程이 아닐 수 없다. 圖書館의 資料選擇活動을 하나의 有機的인 시스템體制로 설명한 예는 H. Edelman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資料選擇에 관련되는 諸般活動과 概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델을 제시하겠다¹³⁾고 전제하고 計劃機能으로서 藏書開發計劃(collection development plan or

10) Bonn, G.S. *op. cit.*, p.265.

11) 李氣乙 〈經營學原論 : 經營管理의 基本課題〉, 서울, 法文社, 1978, p.275-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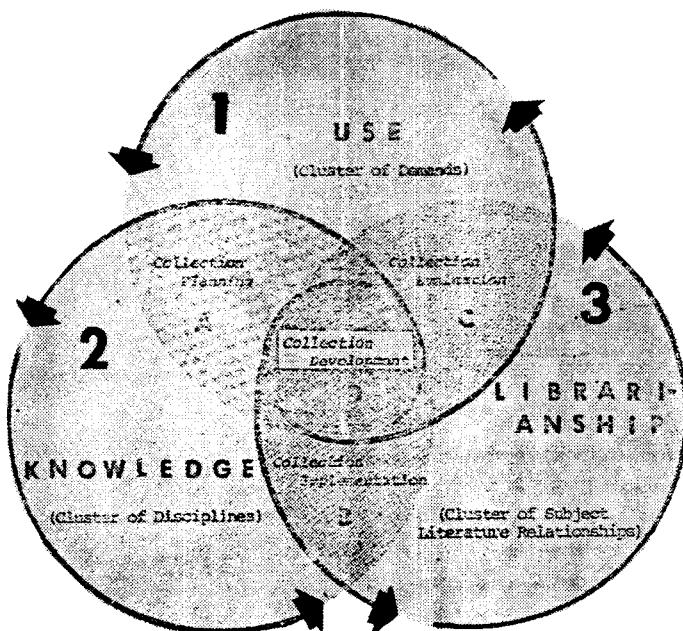
12) 金元錚 〈經營學原論〉, 서울, 經文社, 1978, p.497.

13) Edeiman, H. Selection methodology in academic libraries, *Lib. Res & Tech. Ser.* V.23, N.1 (Winter, 1979) p.33

policy)과, 計劃을 遂行하는데 관련되는 意思決定過程인 資料選擇段階 및 資料選擇決定을 遂行하는 收書過程(Acquisition process)의 三段階를 기술하였다. Edelman은 評價過程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計劃의 遂行過程을 意思決定過程인 選擇過程과 執行過程인 收書過程으로 나누었다. 그는 이 3단계의 過程이 서로 相關的이며 때로는 同時的으로 進行되나 概念上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理論의 展開를 편리하게 한다¹⁴⁾고 말하였다. Edelman의 理論은 한 마디로 資料選擇活動을 目적(collection development plan or policy)→意思決定(實行計劃)(Selection)→遂行(Acquisition)의 시스템체계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圖書館藏書는 遂行(Acquisition)의 結果를 評價하고

<그림 1>

藏書構成活動：構造的 接近



(자료 : James C. Baughman, Toward a structural Approach to collection development, *College & Research Libraries*, May 1977, p.243)

14) Edelman, H. *Ibid.* p.34.

여기서 나타난 錯誤를 다시 意思決定(selection)過程 혹은 目的의 段階로 feedback하여 修正하는 全 過程의 反復으로 출중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ALA Library Research Round Table에서 수여하는 1976年度 Research Competition Award를 수상한 J.C. Baughman은 그의 수상논문에서 “計劃, 遂行, 評價의 概念”을 다이아그램으로 나타내어 이해를 돋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는 장서개발은 遂行한 후 評價하는 計劃이며 이것을 간단히 표시하면 計劃(collection planning)+遂行(collection implementation)+評價(collection evaluation)=藏書構成活動(Collection Development)가 된다고 하였다.¹⁵⁾

W.J. Bonk와 R.M. Magrill은 이 計劃, 遂行, 評價의 3단계의 反復過程으로 이루어지는 藏書構成活動을 “藏書開發政策의 組織的 接近”¹⁶⁾이라고 간단히 표현하였다.

그 외에 藏書評價의 必要性으로 圖書館運營의 實際에서 절실한 것은豫算確保¹⁷⁾¹⁸⁾의 根據를 마련하는 것이다. 圖書館의 恒存하는 問題는 충분한豫算配定을 받는 것이다.豫算配定 擔當官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圖書館豫算配定의 妥當性을 설명하는 것은 보다 설득력있는 주장이 될 것이다. 장서평가를 실시한 많은 도서관에서 장서평가가 필요했던 이유의 하나로 “예산배정을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 마련”을 들고 있다.¹⁹⁾²⁰⁾ 또 特定分野의 教育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資料나 일정한 學文的 水準의 資料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認可機關(accreditation body)에 보일 필요가 있을 때, 혹은 他 圖書館藏書와의 優劣을 比較하고 싶어하는 사서들의 단순한 경쟁의식에서도 장서평가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²¹⁾

15) Baughman, J.C. Toward a structural approach to collection development. *Coll. & Res. Lib.*, V.38, N.3 (May, 1977) p.242.

16) Bonk, W.J. and Magrill, R.M. *Building library collection*, 5th ed., Scarecrow, 1979. p.305.

17) Gardner, R.K. *op. cit.*, p.233.

18) Bonk, W.J. and Magrill, R.M. *Ibid.* p.305.

19) Cassata, M.B. and Dewey, G.L. The evaluation of a university library collection: some guidelines. *Lib. Res. & Tech. Serv.* v.13, N.4, (Fall, 1969), p.451.

20) Mosher, P.H. *op cit.*, p.27.

21) Gardner, R.K. *op. cit.*, p.233.

우리는 以上에서 藏書評價는 꼭 必要한 藏書運營의 한 過程이며 藏書評價를 통하여 보다 效果的인 藏書運營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圖書館에서도 藏書評價를 實施하여 藏書運營의 效果를 높인다면 圖書館發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IV. 藏書評價의 基準(criterion)

우리가 藏書評價를 실시하려고 할 때 가장 經濟的이고 效果를 거둘 수 있는 方法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방법은 무엇을 基準으로 評價하는 方法일까? 즉 어떤 특정한 評價方法을 선택하기 전에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여러가지 評價方法을 놓고 그 方法의 妥當性을 고려하여 최대의 效果를 거둘 수 있는 方法을 택하여야 한다. 評價란 牀面한 現況把握이 아니고 일정한 基準에 對比하여 論議되는 것이기 때문에 評價基準이 있어야 하고 또 그 評價基準은 評價의 意圖를 잘 반영하는 合理的인 基準이어야 한다. 本章에서는 이 合理的인 基準이 무엇인가. 또 그 기준이 왜 合理의인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實施되었던 藏書評價方法은 여러가지가 있다. G.S. Bonn, H.W. Lancaster, P. Mosher, W.J. Bonk, R.M. Magrill 등이 評價方法에 대한 紹介의in 혹은 斷片的인 비평을 한 바 있고 또 個別圖書館에서 실시한 藏書評價의 報告書도 많이 발표되었다.

그들의 대체로의 시도와 방법은 藏書의 量的 測定이거나 아니면 量的 測定을 통한 質의 推定이었고 Mosher를 비롯한 비교적 최근에 藏書評價結果를 發表한 사람들이 質의 測定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Barbra Golden은 University of Nebraska의 도서관장서를 開設講座에 연관시켜 量的인 評價를 실시한 후 質의 測定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²²⁾

그러면 藏書評價의 基準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藏書評價는 藏書의 質을 評價하는 것이며 圖書館의 目的에 一致하는 藏書開發政策에 따라 資料選

22) Golden, Barbra. A method for quantitatively evaluating a university library collection. *Lib., Res. & Tech. Serv.* V.18, N.3 (Summer 1974) p.273.

擇이 이루어졌는가, 그렇게 하므로써 현재의 資料構成이 圖書館의 目的인 利用者의 要求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適切하게 되었는가를 評價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利用者要求充足을 目的으로 資料를 利用 시키되 그 資料의 運營은 모든 組織이나 시스템의 運營에 가장 基本的이고 基礎的인 理論이 되는 經濟性과 効率性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經濟性 및 効率性이란 利用者의 要求充足이라고 하는 目的達成에 대한 “效果”²³⁾를 말한다. 目的을 達成하는데 있어서 최소의 資源을 投入하여 (적은 數量의 資料를 가지고) 원하는 바의 目的을 達成하자는 것이다. 藏書의 量이 크면 藏書의 質이 일반적으로 높다는 것은 여러 研究에서 입증되었다.²⁴⁾²⁵⁾ 그것은 많은 量의 藏書는 要求에 응할 수 있는 確率이 크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많은 量의 藏書를 運營하는데는 많은 資源이 維持費로 소요된다. 維持費를 많이 지출하지 않고도 그만한 量의 支出을 할 때와 같은 效果를 내는 方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擇해야 할 方法이다.

量的인 測定으로 藏書評價를 試圖하는 사서들의 一般的인 傾向과는 달리一部의 學者들은 圖書館藏書에 대한 利用調查를 통하여 利用者에게 活用性이 큰 藏書의 範疇를 把握하므로써 가장 效果的인 藏書의 規模와 內容을 식별하는 藏書評價를 시도하였다.

活用性이 없는 資料를 所藏藏書에서 제거하고 活用性이 큰 資料이나 現在所藏하고 있지 않은 資料를 파악해 내어 소장시킨다면 그만큼 効率的이고 效果的인 藏書運營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藏書評價는 그 基準을 效果的인 藏書運營에 두어야 할 것이다. 效果的인 藏書運營이란 평가되는 圖書館이 所藏하고 있는 資料의 活用性이

23) Du Mont, R.R. A Conceptual basis for library effectiveness, *Coll. & Res. Lib.* V. 41, N. 2 (March, 1980) p.106.

24) Burns, R.W. *Evaluation of the holdings in science technology in the University of Idaho library* (Univ of Idaho Library Publication no.2) Moscow, Univ. of Idaho Library, 1968 p.4 (G.S. Bonn *op. cit.*, p.268에서 재인용)

25) Blau, P.M. and Margulies, R.Z. The reputations of American professional schools. *Change*. 6 : 42-47, 1974-1975 (F.W. Lancaster *op. cit.*, p.167에서 재인용)

얼마나 큰가 하는 문제이다.

藏書評價의 基準에서 고려해야 할 다른 한 가지 측면은 圖書館의 目的이다. M. Hamburg와 F.W. Lancaster는 圖書館의 目的이 資料와 利用者를 서로 만나게 해 주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그들은 각각 "Accesibility"와 "Exposure"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兩者(資料와 利用者)의 關係를 맺어주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²⁶⁾²⁷⁾ 筆者は 圖書館의 目的이 利用者의 要求充足임을 전제로 藏書評價의 目的을 설명한 바 있다. 利用者의 要求充足은 Hamburg와 Lancaster가 말한 "Accesibility"와 "exposure"를 매개로 資料와 利用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은 利用者의 要求資料를 圖書館이 所藏하고 있어야 만이 Accesibility와 exposure를 매개로 資料와 利用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要求充足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藏書評價의 基準은 圖書館의 目的(利用者의 要求充足)을 達成할 수 있는 資料의 所藏程度와 所藏되어 있는 全體 資料의 活用性을 모두 취해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 시도하는 것은 이와 같이 藏書가 어느 정도로 利用者의 要求에 충足을 주는 資料로 構成되었는가, 또 全體 藏書의 活用性은 어떤가를 評價하는 方法에 어떤 것이 있는가 판별하여 個個의 圖書館이 藏書評價를 실시할 때 參考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現存하는 여러가지 藏書評價方法이 위에 지적된 바와 같은 內容의 評價를 하는 方法인가 아닌가를 檢討하기로 한다.

V. 藏書評價의 諸方法과 評價基準에의 接近性 分析

1. 統計에 의한 評價

統計에 의한 評價는 圖書館의 所藏資料의 크기로 藏書를 評價하는 方法이다. 所藏資料統計는 여러가지 形태로 算出할 수 있다. 소장장서총수, 연간 증가수, 분류별 차료수, 1인당 차료수 등 또는 차료의 形態別로, 참고도서

26) Hamburg, M. et al. Library objectives and performance measures and their use in decision making *Lib. Quarterly* v.42, N.2 (Apr. 1972), p.107—128.

27) Lancaster, F.W. *op. cit.* p.5, p.8.

수, 비도서자료수, 축차간행물수 등으로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統計는 特殊技術圖書館을 제외하고는 藏書의 크기에 어떤 意味가 있는 것으로 즉 藏書의 크기와 圖書館이 속한 教育機關의 우수성 사이에 肯定的인 關係²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또 藏書의 크기와 利用者의 要求充足의 가능성 사이에도 결정적인 關係가 있음이 밝혀졌다.²⁹⁾

그러나 우리나라의 一部 大學圖書館에서는 이러한 研究結果를 그대로 안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필모 교수는 “大學圖書館은 大學設置基準令이 발표된 이후 급격한 발전을 보았으나 이것은 다만 圖書館의 數의 增加이며 資料의 量的인 增加일 뿐…… 增加한 資料들은 이미 文獻的 價值를 거의 상실한 것이며 그 菲集도 選擇을 전혀 무시한 非計劃的인 것이었다.”³⁰⁾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또 1955年 大學設置基準令이 공포된 후 수년동안 數個大學에서 市中의 古書店所藏本을廉價로 購入한 사실은 잘 알려진 일이라고 추가하였다. 藏書의 크기와 그 圖書館이 속한 教育機關의 우수성과의 관계나, 장서의 크기와 利用者의 要求充足의 可能性과의 關係를肯定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變則的인 藏書開發을 포함해서 일컬는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一部 大學圖書館의 경우를 예외로 하더라도 統計에 의한 藏書評價는 우리가 앞서에서 결론내린 바 있는 利用者의 要求를 充足시키는 ‘資料의 所藏程度를 把握한다고 하는 評價基準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 利用者要求充足을 目的으로 效果的인 藏書運營을 할 수 있는 藏書의 規模와 内容을 제시하는데 아무런 案이 없는 評價方法이다.

그러므로 이 統計에 의한 方法은 資料選擇의 改善點 혹은 資料選擇政策의 修正을 위한 内容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統計作成은 藏書의 難易程度인 評價를 위해서라기보다는 James Krikelas가 지적했듯이 運營層의 意思決定을 지원하는데 유용하며 여러가지

28) Piternick, G. Library growth and academic quality. *Coll. & Res. Lib.* V.24, N.3 (May 1963) p.223-229.

29) Burns, R. W. *op. cit.* (G.S. Bonn *op. cit.* p.268에서 채인용)

30) 정필모. 研究圖書館의 藏書構成에 관한 考察, 〈중앙대학교논문집〉, v.11 (1966) p.150.

圖書館活動을 설명하는 자료³¹⁾가 되나 이상과 같이 藏書評價를 시도하는 目的과 評價의 基準에 합당하지 않은 方法이라고 하겠다.

統計에 의한 方法 중에는 위에 소개한 바와 같이 成藏資料를 그대로 合算하는 方法 외에 일정한 基準值를 公式에 대입하여 藏書의 最低規模를 算出하고 이 最低規模의 算出值를 基準으로 藏書量을 評價하는 方法이 있다. 유명한 Clapp-Jordan의 公式³²⁾은 學生數當, 教授當, 學部의 學科當, 大學當, 冊數를 정하여 基本圖書館에 合算하는 方法이다. 이 公式은 1972年에 M.R. McInnis에 의하여 大學圖書館에서 最低規模의 藏書量을 안내하는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음³³⁾이 추가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藏書의 크기를 어느 線 이상으로 크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며 藏書의 質을 評價하는 것은 아니다.

또 Allan M. Cartter와 Kenneth E. Beasley도 각각 1966年과 1968年에 公式을 발표하였는데³⁴⁾ Cartter가 사용한 "Library Resources Index"로는 전체적으로 教授陣이 높은 大學의 圖書館이 본 Index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諸 學問分野에 유수한 教育機關에 國家的으로 유명한 研究圖書館이 있다 는 結論을 얻었다. 이것은 藏書의 累積統計의 크기와 教育機關의 우수성과의 관계에서 발견된 사실과 유사한 發見일 뿐이고 Kenneth E. Beasley의 公式도 藏書評價의 본래의 意圖인 藏書의 質을 評價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음으로 統計를 통하여 藏書를 評價하는 方法에 圖書購入費, 雜誌購入費, 사서의 봉급 등의 項目別, 年度別 統計가 있다. 이 統計는 適切한 財政의 뒷받침 없이, 또 藏書를 開發하고 運營해나갈人員이 없이는 圖書館 藏書의 優秀性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圖書館藏書評價의 한 자료가 되는 것³⁵⁾

31) Krikelas, J. Library statistics and the measurement of library services, *ALA Bulletin* v. 60 (May 1966) p. 496-497.

32) Clapp, V. W. and Jordan R. T. Quantitative criteria for adequacy of academic library collections. *Coll. & Res. Lib.* v. 26, (Sepf. 1965) p. 371-380.

33) McInnis, R. M. The formula approach to library size: an empirical study of its efficacy in evaluating research libraries. *Col. & Res. Lib.* V. 33, N. 3 (May 1972) p. 197.

34) Bonn, G. S. *op. cit.* p. 269.

35) Bonn, G. S. *op. cit.* p. 274.

이나 이는 간접적이고 대강의 판단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本稿에서 시도하려는 藏書評價의 근본적인 核心에 接近하는 評價가 아니다.

2. 基準(standards)의 適用에 의한 評價

standards를 適用하는 方法은 standards가 圖書館 혹은 圖書館의 母機關의 目的에 一致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認可機關에서 선포한 standards는 圖書館이 지원이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權威와 說得力を 갖고 있다.³⁶⁾

그러나 standards는 制定된 時期에는 가장 적절한 standards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는 대체로 評價되는 圖書館의 目的에 맞지 않게 되어 standards를 改定하게 된다.³⁷⁾

standards의 實例에서 藏書評價의 基準(criterion)을 찾아 보는 것은 standards에 대한 是非概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美國圖書館協會 大學 및 研究圖書館部會에서 制定한 “大學圖書館을 위한 基準”은 Clapp-Jordan의 公式의 形式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즉 基本藏書에 전임교수당, 정규학생당…… 박사과정당 책수를 規定하여 모두 合算하도록 되어 있다.³⁸⁾

이러한 standards는 결국 그 構造가 藏書의 量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本 standards를 制定한 사람들은 量的 測定에 의존되어 있는 本 standards의 質的測定의 未備點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즉 主釋에서 “圖書館의 藏書는 일단 開發되었다가도…… 그 활용성도 급속히 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藏書開發이 必須的인 일이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本 standards에서 設定한 規模의 藏書를 갖춘 다음이라도 藏書除籍이 있기 前 最低 5%의 年間 成長率을 유지하지 아니하고는 필수불가결한 藏書의 活用性을 견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밝혔고 뿐 아니라 “大學圖書館 藏書開發의 目標는 量的이기 보다는 質的인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圖書選擇의 중요하여 이를 위하여 “一般知識分野를 支援하고 있는 標準書

36) Bonn, G. S. *op. cit.* p. 283-284.

37) 1959年 제정 공표된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를 1975年 Board of Directors of the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에서 改定하여 공표하였다.

38) 美國圖書館協會. 大學 및 研究圖書館部會, 大學圖書館을 위한 基準, 李炳穆譯, 〈도협월보〉, V. 118, N. 5 (1977, 6) p. 4-6.

目, 學術書目에 수록된 圖書의 상당량을 선택하도록” 추천하고 있다.³⁹⁾

1972年 10月號 *Library Trends*는 standards 특집호로 편집되었는데 여기 실린 기사들에서 藏書에 관한 standards를 검토해 보면 대체로 위에例를 든 美國의 “大學圖書館을 위한 基準(standards)”에서와 같이 統計作成을 要求하거나 公式의 使用, 또는 標準書目과 所藏藏書의 對比체킹을 지시하는 形態로 되어 있다. 결국은 standards를 制定하는 사람들도 是非의 對象이 되고 있는 여러가지 評價方法 중에서 선택하여 standards作成에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standards의 適用에 의한 藏書評價는 그 standards에서 채택한 藏書評價方法에 따라 評價의 效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現在 通用되고 있는 standards가 構造上 원칙적으로 質的 評價를 可能하게 하려면 standard를 제정하는 사람들을 납득시킬만한 評價方法이 開發되거나 現存하는 유용한 方法이 널리 보급되고 그 유용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以上에서 論議한 여러가지 藏書評價方法은 量의 測定을 위주로 하는 것이었다. 이 量의 測定方法에 對한 是非를 면밀히 검토하면, 量의 測定이 “항상 客觀性과 正確性, 또는 計數를 利用하는 標準測定單位의 使用이 비교적 용이하였다”⁴⁰⁾는 점과, 運營層의 意思決定에 좌우되는豫算配定은 항상 숫자의 使用을 必要로 하였으므로 이를 위하여서는 오히려 숫자를 表現手段으로 하는 量的 評價method이 보다 적합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점은 또 “大學圖書館의 사서들이 실제로 샘플링이나 公式(formulas), 혹은 기타 量的 接近法을 藏書開發에 사용하여 量의 測定에 대한 가능한 한의 價值를 認定”⁴¹⁾하려고 하였던 것을 이해하게 한다.

그러나 圖書館 藏書評價의 本來의 目的是 評價過程의 容易性이나豫算配定當局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主되는 目的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副次的인 것이며 圖書館利用者の 要求充足을 위한 장서의 利用되는 質料의 所藏

39) 美國圖書館協會 大學 및 研究圖書館部會 *Ibid.*, p.5-6.

40) Bonn, G.S. *op. cit.*, p.266.

41) Magrill, R.M. and East, Mona. Collection development in large university libraries In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8. ed. by Michael H. Harris. Academic Press, 1978. p.37.

程度와 藏書의 活用性을 측정하는데 있으므로 우리가 設定한 評價基準(criterion)에도 합당하지 않은 評價方法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藏書의 質的 評價方法에 대하여 檢討하기로 한다.

3. 書架上의 觀察(Direct Observation, Impressionistic method)에 의한 評價

이 方法은 글자 그대로 主題專門家나 資料專門家가 직접 書架에 가서 調查하는 方法으로 評價하는 사람의 經驗과 主觀을 배제 할 수 없으며 과학적 방법이 못된다. 職業藏書評價 專門家인 Lee Ash도 평가되는 圖書館이 사용하는 分類表의 主分類(Dewey Group 혹은 LC Alphabetical Division)마다 5個 이상의 標準書誌를 미리 준비하여 그 標準書誌와 藏書를 對比체킹하도록 하고 있는데⁴²⁾ 이것은 直接觀察의 客觀性 缺如를 될수록 피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된다.

이 方法은 물론 專門家에 의한 藏書의 質的인 또 量的인 評價이다. 그러나 위에 지적한 문제점 외에도 學問 全 分野에 있어서 해당 분야의 專門家를 각각 고용하는 것도 문제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專門 consultant가 없고 또 상당한 보수를 지불하고 評價專門家를 고용할만한 圖書館이 현재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이 方法은 우리나라에서 實現性이 회박할 뿐 아니라 本稿에서 시도하는 評價基準에 비추어 볼 때 초점에 직접 接近하는 方法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4. 書誌와의 對比체킹에 의한 評價

標準이 되는 lists, catalogs, bibliographies들에 對比하여 所藏資料를 체크해 나가는 方法이다. 書架에 가서 직접 관찰하는 評價方法의 경우에 評價의 成功與否가 主題專門家에 따라서 좌우되듯이 이 체킹方法은 평가되는 圖書館의 利用對象者들의 要求가 標準으로 택한 書目이나 書誌에 반영되어 있는 程度에 따라 評價의 成功與否가 좌우된다.

G.S. Bonn은 이 方法의 사용하기에 쉽고 評價結果를 說明하는데 效果的

42) Ash, Lee. Consulting in collection development. *Lib. Trends.* V. 28, N. 3 (Winter, 1980) p. 480.

이며 直接的”이어서 편리할 뿐 아니라 美國의 경우에는 “유수한 專門司書나 主題專門家들이 편집한 書誌들이 출판되어 나와 있고 또 정기적으로 개정되어 最近性을 유지하고 있으며 個別圖書館 또는 館種別 圖書館 및 特定 분야의 圖書館의 要求에 따라 特別書誌로 조정할 수 있어서 편리”하기는 하나 “출판된 리스트는 해당 圖書館이 존재하는 地域社會 및 地域社會의 利用對象者들의 흥미와 요구에 꼭 들어 맞게 관련있는 資料들로構成되기가 어렵다”고 논평하여⁴³⁾ 標準書目과 所藏資料를 對比 체킹하는 評價方法은 그 效果를 전적으로 評價에 사용하는 書目的 適切性에 依存하여야 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研究圖書館에서는 물론 美國을 비롯한 西洋諸國의 資料, 특히 英文으로 된 資料를 많이 利用하고 있으나 역시 國語와 日本語의 利用率을 도외시할 수 없다.⁴⁴⁾ 美國에서 出版한 書誌들은 美國을 비롯한 西洋資料에 重點을 둔 書誌들이며 國語나 日本語 資料의 包含率이 적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研究圖書館에서 美國에서 출판한 書誌를 藏書評價의 標準書目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많은 사서들이 의심을 가질 것이며 어느 정도 參考할 수 있다 하더라도 藏書의 상당한 부분이 東洋書인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물론 우리가 택한 標準書目이 研究圖書館의 利用者들의 흥미와 요구에 꼭 들어 맞는 資料들로構成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 方法은 “標準書目에 수록된 資料의 몇 %가 評價되는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어야 한다는 規定을 設定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所藏資料 중에 몇 %가 標準書目에 수록되어 있는지를”⁴⁵⁾ 계산할 수 있으며 評價에 사용한 標準書目이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活用性이 없는 資料의 廢棄와 所藏하고 있지 않은 資料로서 標準書目에 수록되어 있는 資料를 새로 입수하는 計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標準書目을 절대적으로 인정한다면 이 書目에 의한 藏書評價結果는 効果的인 藏書運營을 약속할 수 있다.

43) Bonn, G. S. *op. cit.* p. 274-275.

44) 정필모. *op. cit.* p. 157.

45) Bonk, W. J. and Magrill, R. M. *op. cit.*, p. 307

문제는 評價에 使用할 만한 書目이 있는가에 있으며 G.S. Bonno] 지적했듯 이 資料選擇過程에서 바로 그 書目을 資料選擇道具로 사용하였을 경우 藏書評價의 結果가 무의미하게 된다.⁴⁶⁾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 評價方法은 圖書館藏書를 質的으로 評價하는 매우 보편화된 방법으로 西洋에서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고^{47), 48), 49), 50), 51), 52), 53)} 또 어느정도 그 價値를 인정하게 되나 우리나라에서는 評價에 使用하는 書目의 問題로 인하여 추천을 주저하게 된다.

G.S. Bonn은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書目이나 書誌에 對比하여 체킹하는 評價方法을 추천하고 있다. “이 方法을 사용하여 가장 效果를 보기 위하여는 評價되는 圖書館 및 圖書館들의 目的 및 目標와 調査의 必要性을 일치시켜서 편집한 리스트를 評價의 標準書目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리스트 체킹方法과 아울러 다른 評價技法을 竝行·使用하여 評價結果가 가능한 한 뚜렷하게 確證되어야 할 것이다.”⁵⁴⁾

5. 利用者의 意見調查에 의한 評價

利用者 意見調查는 質問紙를 사용하거나 個別 面談을 통하여 教授團, 學生, 研究員 等 利用對象者들의 意見을 묻는 것이다. G.S. Bonno이나 R. Horn 같은 사람들은 司書들에게서도 意見을 청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참고 사

46) Bonn, G. S. *op. cit.*, p.275.

47) Bach, H. Evaluation of the library collection. *Lib. Res. & Tech. Ser.* V.2, N.1, (Winter, 1958) p.24—29.

48) Coale, R. P. Evaluation of a research library collection Latin American Colonial history at the Newberry Lib Quarterly, V.35, N.2 (July, 1965) p.173—184.

49) Cassata, M. and Dewey, G. *op. cit.* p.450—457.

50) Webb, W. Project Co Ed. : A university library collection evaluation and development program. *Lib. Res. & Tech. Serv.* V.13, N.4(Fall, 1979) p.457—462.

51) Mosher, P. H. *op. cit.*, p.16—32.

52) McInnis, R. M. Research collection : an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quality. *Institute of Professional Libraries of Ontario (IPLO) Quarterly* V.13, N.1 (1971). p.13—(Qualitative/Quantitative evaluation of academic library collections : a literature survey, ed S.E. Ifidon. *Int. Lib. Review.* V.8 (1976) p.30에서 채인용).

53) Nisoner, T. E. An In-depth collection evaluation at the University of Manitoba Library ; a test of the Lopez method, *Lib. Res. & Tech. Serv.* V.24, N.4(Fall, 1980) p.329—338

54) Bonn, G. S. *op. cit.* p.279.

서들은 특정 도서관의 利用者가 원하는 것을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이므로 그 圖書館의 不足한 것과 充分한 것을 잘 안다고 하였다.⁵⁵⁾⁵⁶⁾

이 評價方法은 圖書館의 目的이 利用者의 要求에 응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要求를 把握한다는 것은 論理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G.S. Bonn은 教授團, 研究院, 專門家 등 圖書館의 단골 이용자들은 적어도 그들의 專門分野의 文獻에 관한 知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專門家로 볼 수 있다고 記述하기도 하였으나 意見調查對象者들은 評價를 당당한 專門家로서 그들의 紐미분야의 藏書에 대한 意見을 들려 줄 것을 기대하는 調查者側의 입장과는 달리 評價에 대하여 매우 수동적이기 쉽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⁵⁷⁾

R.K. Gardn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利用者들의 意見을 調査하는 것은 그들의 要求의 水準, 傾向, 興味의 變化 등 “調査된 利用者群의 一般的인 集團意見”⁵⁸⁾을 파악하는데 적절할 것이나 藏書에 대한 포괄적이고 확실한 評價는 어렵다. 물론 具體的이고 確實한 根據를 기초로 폐기자료의 區分, 別途保管 등을 포함하는 藏書運營上의 改善點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나 利用者의 意見調查에 의한 評價方法은 다음에 論議될 資料 利用調查에 의한 評價方法과 並行하여 實施하므로써 藏書評價의 한 方法으로 유도될 수 있다고 본다. 즉 利用者의 要求水準, 傾向, 興味를 把握하는 것과 더불어 利用된 資料統計를 調査·分析하므로써 本稿에서 전제한 資料의 活用性 및 利用者의 要求資料의 所藏程度測定이라고 하는 觀點에서 實施하는 藏書評價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資料의 利用調查에 의한 評價

지금까지 論議되었던 藏書評價의 諸方法은 利用者意見調查에 의한 評價方法만을 제외하면 모두 藏書의 利用狀況을 별개로 하고 藏書自體에만 치중하여 評價를 시도한 것이었다. 이에 비하여 資料의 利用調查에 의한 評價는

55) Bonn, G.S. *op. cit.* p.283.

56) Horn, R. Think big : the evolution of Bureaucracy, *Coll. & Res. Lib.* V.33 N.1 (Jan, 1972) p.17.

57) Bonn, G.S. *op. cit.*, p.279.

58) Gardner, R.K. *op. cit.*, p.237.

利用狀況의 把握을 통하여 利用되는 資料와 利用되지 않는 資料, 자주 利用되는 資料와 자주 利用되지 않고 資料를 區別하려는 試圖이다.

우리는 앞에서 藏書評價의 基準을 所藏資料의 活用性 畏악과, 利用者 要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資料의 所藏程度把握에 둔다고 하였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調查되는 圖書館藏書에서 利用者들의 要求總件數 중에 몇件, 혹은 몇 %의 要求文獻이 所藏되어 있는가 또 總藏書의 몇 %가 利用者의 要求에 응하는 役割에 동원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가장 직접적이고 적절한 해답은 利用者들이, 評價되는 圖書館藏書를 通하여 몇 件의 文獻을 利用했는지 또는 몇 %의 要求充足을 했는지, 또 이들이 利用한 資料는 全體 藏書의 몇 %이며 어느 部分인지를 把握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解答은 資料利用 狀況을 調査·分析하므로써 그 一部의 解答이 가능하다. 여기서 一部可能이라고 한 것은 이용자의 要求의 總件數나 要求充足의 總體를 利用된 資料만으로는 畏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이 評價方法은 藏書評價의 基準에서 언급되었던 두 가지 條件을 거의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그 接近의 程度가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다.

이러한 評價方法은 1911年 A.K. Jain에 의해 실시되었다.⁵⁹⁾ 그는 이 評價에 두 가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全體 藏書中에 一定量의 資料를 샘플로 정하여 이 資料들의 過去 利用狀況을 調査하는 方法이고 둘째는 圖書館에서 대출되어 나간 모든 資料를 一定 기간동안 調査하는 方法이었다. 이 두가지 방법에 의한 利用調查의 分析으로 資料의 形態別 利用度, 年度別 利用度, 季節的利用分布, 또는 利用者의 類型 등을 알 수 있으며 특히 利用頻度가 높은 資料와 利用頻度가 낮은 資料를 畏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分析資料는 바로 藏書評價에서 기대하는 資料이다. 이 分析資料에 의하여 資料選擇政策을 수정할 수 있고 廢棄資料에 대한 決定을 내릴 수 있다. 또 資料의 接近性을 고려하여 備置形式(개가식 비치, 서로 비치, 혹은

59) Jain, A. K. *A sampled data study of book usage in the Purdue University Libraries*.
Purdue Univ. 1965 (F. W. Lancaster, op. cit. p. 178—179에서 채인용)

利用頻度가 적은 資料의 別途保管 등)을 결정할 수 있다.

A.K. Jain이 시도한 또 다른 利用調查方法에는 장서샘플과 利用샘플의 調査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다.⁶⁰⁾⁶¹⁾ 이 方法은 全體藏書에서 샘플자료를 S, 관외대출된 샘플자료를 H, 및 관내 이용된 샘플자료를 I로 하고 각 샘플을 미리 정해진 특징 즉 出版年度, 言語, 主題, 收入年度 등으로 구룹을 만들어 분류한 다음 샘플의 각 구룹의 分量으로 보아 예상되는 利用度를 實際의 利用記錄과 비교하는 것이다. 결과는 예를 들어 Purdue대학 화학도서관의 1935년 이전 입수자료는 11.9%인데 비하여 1935년 이전 입수자료의 利用度는 2%로 나타났다.

이 分析方法에서 일정한 구룹의 장서 i 에 대한 상관이용율 R_i (구룹 i 의 상관이용율) = $\frac{H_i + I_i}{S_i} \times 100$ 으로 계산된다.

R_i 가 낮은 자료구룹은 利用度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않은 資料群이 된다. 이 R_i 에 의하여 이용도가 높은 資料群을 現在 적게 收入하고 있을 때 資料選擇政策을 수정할 수 있다. 이용되지 않는 혹은 자주 이용되지 않는 資料群에 대하여 폐기 혹은 別途保管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資料의 運用을 効果的으로 하는 것은 누차에 걸쳐 기출한 바와 같이 적은 數의 자료를 運用하면서 많은 數의 資料의 運用할 때와 같은 利用度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 다른 資料의 利用調查를 통한 藏書評價에는 Trueswell이 시도한 Last circulation date를 기초로 藏書의 利用率을 측정하는 方法이다.⁶²⁾⁶³⁾ 그는 일정한 調査期間에 대출된 각 資料의 대출카드에서 調査되는 날 대출되는 資料의 以前 마지막 대출일자의 分布圖를 그림 2와 같이 나타내었다. 이 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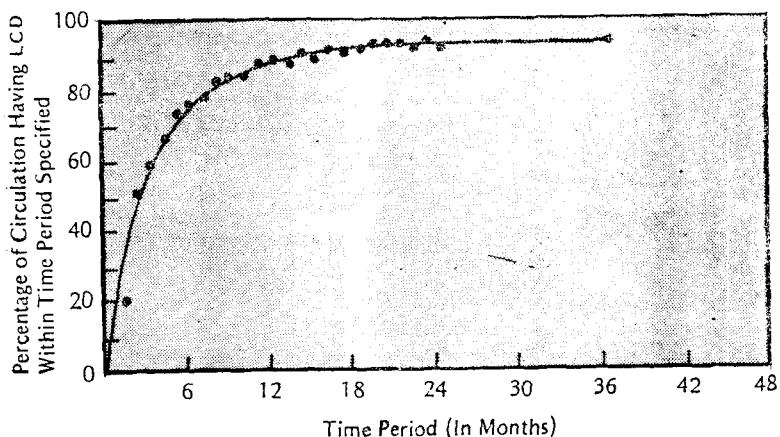
60) Jain, A. K. Sampling and data collection methods for a book-use study *Library Quarterly* V. 39, N. 3 (1969), p. 245—252.

61) Jain, A. K. Sampling and short-period usage in the Pardue Library College & Res. Lib. V. 27 N. 3 (1966) p. 211—218.

62) Trueswell, R. W. Determining an optimla number of volumes for a library's core collection *Libri*, 16 ; 49—60 1966 (F. M. Lancaster, *op. cit.* p. 187에서 재인용)

63) Trues well, R. W. Two Characteristics of Circulation and their effect on the implementation of mechanized circulation control systems. *Coll. & Res. Lib.* V. 25, (1964) p. 285—291.

<그림 2> Distribution of book use by last circulation date method.



(자료 : F. W. Lancaster.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p. 187.)

圖는 資料利用의 累積頻度分布圖(cumulative frequency distribution), 즉 대출일자 사이의 기간(cumulative time period)이 일정한 조사기간내에 1회 이상 들어 있는 대출자료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림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資料의 90%가 지난 12個月 내에 last circulation date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그 기간 동안 적어도 1회 이상 대출된 것을 의미한다. 50%가 지난 3個月 내에 last circulation date가 있으며 10%는 지난 1個月 내에 대출기록을 보인다. 10% 정도의 資料는 지난 12개월 내에 대출된 적이 없으며 3%는 36個月 동안 대출된 적이 없다. 이 調查方法은 이용빈도가 높은 藏書의 範圍를(core collection) 파악하여 藏書開發政策 혹은 廢棄, 別途保管 등의 意思決定에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以上 서술한 利用者調查를 통한 評價方法은 藏書評價의 基準에서 지적한 藏書의 活用性을 직접적으로 評價하는 방법이다. 藏書運營의 feedback 과정에서 修正 혹은 再計劃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資料(data)를 제공한다. 즉 利用度에 比較하여 現存 藏書의 강한 分野와 약한 分野를 판단하여 資料選

擇政策을 개선할 수 있고 利用度가 아주 낮은 자료의 別途保管 또는 廢棄에 대한決定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方法만으로는 利用者의 要求充足의 程度를 온전히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니 利用者의 要求는 現存하는 藏書에서 一部 充足되나 一部는 要求資料가 所藏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充足되지 못했을 것이므로 要求充足의 程度把握은 充足되지 못한 部分을 또 把握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利用者에 의해서 要求되었으나 충족되지 못한 資料와 充足된 資料의 總體的 測定을 하여야만이 充足된 要求資料의 程度를 알 수 있는 것이다. 利用된 資料가 數值로 나타난 것은 利用者의 關心度 全體中 국한된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利用者의 要求란 利用者가 明確한 목표를 인식하고 要求充足을 위하여 來館한 경우의 전부를 말하기 때문이다.⁶⁴⁾

G.S. Bonn은 充足되지 않은 要求(unfilled request)를 기록해 둘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⁶⁵⁾ 이 記錄은 利用된 資料의 記錄과 함께 利用者要求資料의 總體를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河井弘志는 圖書館에서 充足할 수 있는 要求와 充足할 수 없는 要求를 모두 포함한 利用者要求의 總體는 앙케이트에 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⁶⁶⁾ 앙케이트 作成 內容의 조절에 따라서 圖書館에서 充足될 수 없는 利用者의 要求資料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한 方法이라고 볼 수 있다.

앙케이트나 面談을 통하여 利用者要求의 水準, 傾向, 興味 등을 파악하고 또 구체적인 unfilled request(titles)를 파악하여 利用者의 要求를 알아내면 充足된 利用者要求(利用된 資料의 分析으로 나타남) 對比시켜서 利用者要求充足의 程度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 여기서 얻은 利用者의 要求資料는 資料選擇政策의 再調整이나 選擇過程에서 參考해야 하는 유용한 data가 된다.

7. 文獻配達能力測定에 의한 評價

F.W. Lancaster는 “圖書館 藏書가 評價되는 基準은 그 藏書를 對象으로

64) 河井弘志. 藏書構成の 評價法について. 〈圖書館界〉, V.24, N.1 (1972.5) p.19.

65) Bonn, G.S. *op. cit.*, p.270.

66) 河井弘志. *op. cit.*, p.19.

要求된 文獻을 그 圖書館이 만족시키느냐 만족시키지 못하느냐에 있다. 좀 더 정확하게는 要求資料 중에 어느 정도로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있다. 즉 圖書館 利用者들이 要求하는 文獻을 提供하는 能力이 藏書評價의 主된 基準⁶⁷⁾이며 이것은 곧 文獻配達能力(document delivery capability)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藏書評價는 그 評價基準이 文獻配達能力에 있으므로 圖書館이 文獻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어느 정도로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다.

이 测定方法은 도서관상호대차제도의 보편화를 전제로 하는 藏書評價法으로서 組織網의 체제내의 각각의 도서관에서 일정한 수의 文獻을 시험샘플로 선정한 다음, 그 配達速度에 따라 平均速度를 1에서 5까지로 표시하되 조사 되는 圖書館에 資料가 있을 때는 1로, 圖書館에 資料가 없어서 그 자료를 外部에서 대출해 오는데 1주일 이상이 걸릴 때는 5로 표시하여 여기서 文獻配達能力索引를 誘導하는 방법이다. 文獻配達能力索引은 1에서 5까지의 숫자로 표시된 平均速度를 간단히 數學的 公式으로 만들었다. 즉 文獻配達能力索引 = $\frac{5 - \text{平均速度}}{4} \times 100$ 이 된다. 그러므로 文獻配達能力索引(Capability Index)는 찾고자 하는 모든 資料가 당해 도서관 書架에 있을 때 100이 되고 한 件도 없을 때 즉 1주일 이내에 한 件도 利用者에게 配達할 수 없을 때 0이 된다.⁶⁸⁾⁶⁹⁾

위에 서술한 文獻配達能力評價와 비슷한 文獻配達能力試驗을 R. J. Penner,⁷⁰⁾ M.B. Line,⁷¹⁾ Urquhart와 Schofield⁷²⁾도 開發・實施하였다.

67) Lancaster, F. W. *op. cit.*, p.207.

68) Orr, Richard H. et al. Development of methodologic tools for planning and managing library services : II. Measuring a library's capability for providing documents,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V.56, (July 1969) p.251. (Bonn, G. S. *op. cit.*, p.291-292에서 재인용)

69) Lancaster, F. W. *op. cit.*, p.209.

70) Penner, R.J. Measuring a library's capability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V.13, N.1 (1972), p.17-30.

71) Line, M.B. The ability of a university library to provide books wanted by researchers, *Journal of librarianship*, V.5, N.1 (1973), p.37-51.

72) Urquhart, J.A. and Schofield, J.L. Measuring readers' failure at the shelf in three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Documentation*, V.28, N.4 (1972) p.233-241.

Lancaster는 여러가지 變形으로 시도된 文獻配達能力評價方法을 두가지 類型으로 구분하였다.⁷³⁾ 하나는 임의로 引用文獻샘플을 뽑은 다음 이 文獻들을 일정한 分野의 引用文獻群으로 나누어 數個의 圖書館을 對象으로 文獻配達能力을 시험하는 方法이고 다른 하나는 圖書館利用者의 一部를 샘플로 정하여 그들의 實際要求와 그 要求에 응하는 圖書館의 文獻配達能力을 시험하는 方法이다. Lancaster는 이 두 類型의 方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論評을 하였다.⁷⁴⁾

첫번 방법은 數個의 圖書館의 文獻配達能力을 比較하는데 유용한 技法이다. 이 方法은 引用文獻들의 分野를 設定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샘플에 선정된 文獻이 圖書館 利用者의 實際要求를 充足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配達되었어도 필요없는 文獻으로 버려지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配達文獻은 利用者가 방문한 圖書館에 所藏된 文獻은 물론相互貸借를 통하여 다른 圖書館의 文獻도 배달되기 때문에 배달된 文獻이 利用者가 필요로 하던 것인지 아닌지의 確認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試驗方法에서는 배달되는 文獻이 모두 必要한 것이었다는 假定에서 출발하고 있는 허약성을 보인다. 한편 이 文獻配達能力調查는 調查技法이 간단하면서도 大規模의 圖書館 組織網 시스템에서는 文獻配達速度를 평점하는데 복잡한 점이 있다는 결점이 있다.

R.H. Orr와 그의 동료들이 처음 시작한 이 샘플이용 方法은 여러 도서관 장서를 比較·評價하는 巨視評價(Macroevaluation)의 좋은 道具가 된다. Urquhart와 Schofield가 사용한 둘째번 방법은 어떤 특정한 圖書館의 藏書의 弱한 部分을 지적하여 改善策을 강구할 수 있는 자료(data)를 提供하므로 微視評價(Microevaluation)의 한 方法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利用者를 고정시키고 그들에게서, 自然發生的으로 산만하게 요구되는 문헌의 配達能力을 調查하는 것보다 샘플로 정한 文獻, 즉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分野의 文獻을 고정시키고 그 文獻들의 配達能力를 시험하는 것이 文獻配達能

73) Lancaster, F.M. *op. cit.* p.236.

74) Lancaster, F.W. *op. cit.* p.236-237.

力測定이라는 견지에서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文獻配達能力評價를 藏書評價로 보는 見解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學術情報의 國際化現狀이라든가, 相互貸借制度의 發達 나아가 圖書館 全般 業務에 걸친 組織網現狀은 한 圖書館을 의례히 奉仕組織의 單位體로 認識하고 個別 圖書館의 藏書만을 測定하는 藏書評價를 無意味한 評價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G.S. Bonn은 “地域의으로 치우쳐 있는 圖書館을 통하여 接近할 수 있는 總體的 資料는 利用者의 要求를 効率적으로 效果적으로 또 迅速하게——즉 適切하게——만족시키는 그 圖書館의 能力에 관한 것이며 곧 ‘藏書’로 평가되어야 한다”⁷⁵⁾고 기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신중히, 文獻配達ability을 藏書評價의 主된 基準(principle criterion)으로 보는 見解에⁷⁶⁾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서 論議된 모든 藏書評價方法의 評價對象이 藏書에 국한되어 있었음에比하여 文獻配達ability評價는 藏書와 함께 圖書館의 다른 構成要素들의 機能評價도 포함하고 있는 점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文獻配達ability評價는 藏書評價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한 圖書館의 文獻配達 ability은 所藏資料의 内容과 規模만이 아니라 다른 要素 즉 司書들의 教育과 經驗에 의해 決定되는 專門性 또는 司書로서의 老練性, 圖書館奉仕體制의 有機的인 組織性, 施設 등등 여러가지 要素를 變數로 취하기 때문이다.

R.H. Orr와 A.P. Schless는 특정 도서관 혹은 一群의 特定 圖書館의 文獻配達ability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變數의 作用을 쉽게 計算해 낼 수 있다고⁷⁷⁾ 하였으나 筆者로서는 간단히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圖書館業務는 “奉仕”라고 하는 추상적인 單字를 사용하고 있듯이 대부분의 圖書館奉仕活動이 數量化 혹은 物量化하여 表現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하여 計算

75) Bonn, G.S. *op. cit.*, p.293.

76) Lancaster, F.W. *op cit.*, 207.

77) Orr, Richard H. and Schless, Arthur P. Document delivery capabilities of major biomedical libraries in 1968 :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employing standardized tests.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V.60 (July, 1972) p.382 (G.S. Bonn *op. cit.* p.292에서 재인용)

해낼 수 있다고 해도 特定 圖書館의 文獻配達能力發揮에서 그 圖書館 藏書가 행하는 뜻을 分離하여 計算해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며, 특정 도서관의 文獻配達能力과 그 圖書館의 藏書가 文獻配達能力發揮에서 貢獻하는 뜻은 같은 것이 아니라 別個의 것으로 解釋되어야 할 것이다. 特定 圖書館의 文獻配達能力은 圖書館의 藏書와, 다른 構成要素들의 複合的인 作用으로 이루어지는 最終 產物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結論的으로 文獻配達能力의 測定은 藏書評價의 한 方法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좀 더 넓은 範圍의 圖書館評價의 한 方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方法은 오히려 圖書館組織網의 體系內에서 圖書館의 目的達成(利用者의 要求充足)의 迅速性을 測定하는데 적합하다고 본다. 組織網의 體系內에서는 利用者들이 원하는 資料가 組織網內의 어느 圖書館에든 所藏되어 있을 確率이 큰 것이며 資料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文獻이 提供되는 速度가 問題될 것이다.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KORSTIC)를 통하여 外國에서 配達되는 文獻은 要求가 發生한 時期로부터 計算하여 要求者에게 到達되기 까지는 통상 1 個月 이상이 걸리며 國內所藏資料도 보통은 1週日이 걸리기 때문에 文獻을 필요로하는 適時를 놓치게 되는 수가 허다하다.

또한 文獻配達能力의 評價는 圖書館 組織網이 아직은 發達道上에 있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圖書館의 目的達成의 迅速度 測定法이라고 하더라도 非現實의이다.

以上으로 圖書館 藏書評價, 특히 研究圖書館을 標的으로 하고 試圖한 藏書評價의 諸種類와 方法에 對한 記述을 마친다.

다음으로는 本稿의 論旨를 要約하고 本論에서 도달한 歸趣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고 현실성 있는 藏書評價方法을 提案하고자 한다.

VII. 結論

우리나라의 圖書館은 藏書 뿐 아니다 어떠한 業務分野에서도 그 評價結果가 發表된 일이 드물다. 1971年 韓國圖書館協會에서 우리나라의 全般的인

圖書館 現況을 調査·分析하여 出版한 일이 있으나⁷⁸⁾ 그것은 우리나라의 館種別 圖書館 全體를 對象으로 概括的인 現況과 問題點을 지적한 것이었고 個別 圖書館의 藏書評價를 本格的으로 實施하여 그 結果를 發表한 일은 없다.

本稿는 이와 같은 우리의 現實을 감안하여 圖書館運營의 한 核心分野로서의 藏書運營을 効果的으로 함으로써 우리나라 個個의 圖書館의 目的達成에 커다란 寄與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假定하에서 시도되었다.

効果的인 藏書運營은 여러가지 側面에서 論議될 수 있을 것이나 그 중요한 核心은 藏書開發을 藏書構成의 計劃, 資料選擇(計劃의 遂行), 藏書評價의 段階로 構成되는 組織的體系의 連續的인 活動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圖書館들에서 省略하고 있는 藏書評價의 段階를 거치므로써 計劃이나 遂行過程의 誤謬를 修正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圖書館에 대해서 “運營한다”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圖書館이 하나의 組織體이며 시스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組織體나 시스템이 効果的으로 유지되려면 반드시 그 組織體나 시스템의 目的達成을 위한 計劃과 그 計劃의 遂行 및 遂行에 對한 評價를 反復해야 한다. 그렇게 하므로써 계속적으로 再計劃과 修正을 加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目的達成의 効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藏書評價는 곧 目的에 대한 計劃, 遂行, 評價, 이 3段階의 한 過程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실시하여야 藏書의 効果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藏書가 効果的으로 構成되면 즉 活用性이 높고 利用率이 크면 圖書館의 目的을 達成할 確率이 크다.

圖書館의 目的이란 여러번 지적되었듯이 圖書館 利用者들의 要求를 充足시키는 것이다. 利用者要求의 充足은 利用者가 원하는 文獻을 提供할 수 있을 때이다. 즉 利用者가 원하는 資料와 소장되어 있는 資料가 서로 맞아야 한다. 兩者를 서로 맞추기 위해서는 利用者가 원하는 자료가 所藏되어 있지 않을 때 이를 收入하여야 한다. 利用者가 원하지 않는 資料가 所藏되어 있을 때는 이것은 필요없으므로 廢棄하는 것이 經費支出을 줄이게 된다. 이것이 곧 圖書館의 目的인 利用者의 要求充足을 達成하면서 藏書를 効果的으로

78) 한국도서관협회 편 〈전국도서관실태조사〉 2권, 서울, 동협회, 1971.

運營하는 方法이다.

그렇다면 所藏되어 있지 않은 資料로서 利用者가 원하는 資料를 알아야 하고, 所藏되어 있으나 利用者들이 원하지 않는 資料가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利用者들이 원하는 資料로서 未所藏 資料는 質問紙나 面談을 통하여 또 unfilled request의 記錄을 유지해 둠으로써 그들의 要求의 水準과 傾向, 興味 등을 파악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資料名을 알 수 있고 利用者들이 원하지 않는 資料로서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 資料는 圖書館 資料의 利用記錄을 여러 각도로 組織·分析하여 考察함으로써 알 수 있다.

筆者は 本論에서 論述한 바 있는 7種의 藏書評價方法中에서 이 2種의 方法(즉 利用者의 意見調查에 의한 평가방법과 資料의 利用調查에 의한 評價方法)이 圖書館 藏書評價方法으로 가장 適切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評價基準의 觀點에서 볼 때 直接的이고 實際的인 接近方法이며 둘째 이 두 가지 方法은 서로 보완하여 現 所藏資料의 過不足의 面을 지적해 주므로써 藏書評價의 効果를 높이고 셋째 이 두 가지 方法은 우리나라 司書들에게 生疎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點과 또 따로이 評價 專門家가 必要하거나 權威있는 標準書誌가 必要하지 않으며, 所藏藏書를 標準書誌에 對比 채킹하는 것과 같이 時間과 勞力を 過多하게 要하지 않고 圖書館의 日常業務를 進行하면서 遂行할 수 있는 評價方法이므로 實現的이고 便利하고 넷째로 다른 藏書評價方法들의 缺點——즉 藏書評價의 目的이나 評價基準에 비추어 非合理的이었거나 合理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實現과 맞지 않는 點들을 감안할 때 現在로서는 가장 적합한 評價 方法으로 판단하였다.

<參考文獻>

1. 金 元鉢. 經營學原論. 서울, 經文社, 1978. 816p.
2. 동아출판사 편집부 편. 신콘사이스 국어사전. 서울, 同社, 1980. 1856p.
3. 美國圖書館協會, 大學 및 研究圖書館部會. 大學圖書館을 위한 基準. 李炳穆譯, 도협월보, V.118, N.5. (1977. 6) p.3-18.
4. 李 氣乙. 經營學原論: 經營管理의 基本課題. 서울, 法文社, 1978. 549p.

5. 정필모. “研究圖書館의 藏書構成에 관한 考察,” *중앙대학교 논문집*, V.11. (1966) p.149—165.
6. 河井弘志. “藏書構成の 評價法について,” *圖書館界* V.14,. N.6 (1972.5) p. 17—20.
7. 한국도서관협회 편. *전국도서관실태조사*, 2권. 서울, 동협회, 1971.
8. 한국어사전편찬위원회 편. *대국어사전*. 서울, 玄文社, 1976. p.2621.
9. Ash, Lee. Consulting in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y Trends*. V.28, N.3 (Winter 1980) p.473—483.
10. Bach, H. Evaluation of the library collection.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2, N.1 (Winter 1958) p.24—29.
11. Baughman, J.C. Toward a structural approach to collection development,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38, N.3 (May 1977) p.241—248.
12. Blau, P.M. and Margulies, R.Z. The reputations of American professional schools. *Change* V.6 (1974—1975) p.42—47.
13. Bonk, W.J. and Magrill, R.M. *Building Library Collection*, 5th ed. Scarecrow, 1979, 380p.
14. Bonn, G.S. Evaluation of the collection. *Library Trends*. V.22, N.3 (Jan. 1974) p.265—304.
15. Burns, R.W. *Evaluation of the holdings in science technology in the University of Idaho Library* (Univ. of Idaho Library Publication No.2) Moscow, Univ. of Idaho Library, 1968.
16. Cassata, M.B. and Dewey, G.L. The evaluation of a university library collection : some guideline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13, N.4 (Fall 1969) p.450—457.
17. Clapp, V.W. and Jordan R.T. Quantitative Criteria for adequacy of academic library collection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26 (sept, 1965) p.371—380.
18. Coale, R.P. Evaluation of a research library collection : Latin American colonial history at the Newberry. *Library Quaterly*. V.35, N.2 (July, 1965) p.173—184.
19. Du Mont, R.R. A conceptual basis for library effectivenes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41, N.2 (March 1980) p.103—111.
20. Edelman, H. Selection methodology in academic librarie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23, N.1 (Winter 1979) p.33—38.
21. Gardner, R.K. *Library Collections : their origin, selection and develop-*

- pment. New York, McGraw Hill, 1981, 354p.
22. Golden, Barbra. A method for quantitatively evaluating a university library collection.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18, N.3 (Summer 1974) p.268—274.
 23. Hamburg, M. et. al. Library objectives and performance measures and their use in decision making. *Library Quaterly*. V.42, N.2 (Apr. 1972) p.107—128.
 24. Harrod, L.M. *The Librarian's Glossary of Terms Used in Librarianship, Documentation and the Book Crafts, and Reference Book*. London, Andre Deutsch, 1977, 903p.
 25. Horn, R. Think big : the evolution of bureaucrac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33, N.1 (Jan. 1972) p.13—17.
 26. Jain, A.K. *A Sampled Data Study of Book Usage in the Purdue University Libraries*. Purdue Univ., 1965.
 27. Jain, A.K. Sampling and data collection methods for a book-use study. *Library Quaterly*. V.39, N.3 (1969) p.245—252.
 28. Jain, A.K. Sampling and short-period usage in the Purdue Librar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27, N.3 (1966) p.211—218.
 29. Krikelas, J. Library statistics and the measurement of library services. *ALA Bulletin*. V.60 (May 1966) p.494—498.
 30. Lancaster, F.W.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Library Services*. Washington, D.C., Information Resources Press, 1977, 395p.
 31. McInnis, R.M. The formula approach to library size : an empirical study of its efficacy in evaluating research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33, N.3 (May 1972), p.190—198.
 32. McInnis, R.M. Research collection : an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quality. *Institute of Professional Libraries of Ontario (IPLO) Quaterly*. V.13, N.1 (1971) p.13—
 33. Magrill, R.M. and East, Mona. Collection development in large university libraries. In *Advances in librarianship*. V.8 ed, by Michael H. Harris. Academic Press, 1978. p.1—54.
 34. Mosher, P.H. Collection evaluation in research libraries : the search for qualities, consistency and system in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23, N.1 (Winter, 1979) p.16—32.
 35. Nisonger, T.E. An In-depth collection evaluation at the University of

- Manitoba Library : a test of the Lopez method.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24, N.4 (Fall 1980) p.329—338.
36. Orr, R.H. and Schless, A.P. Document delivery capabilities of major biomedical libraries in 1968 :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employing standized tests.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V.60 (July 1972) p.382—422.
37. Orr, R.H. et al. Development of methodologic tools fer planning and managing library services : II. Measuring a library's capability for providing documents.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V.56 (July1968), p.235—267.
38. Penner, R.J. Measuring a library's capability.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V.13, N.1 (1972), p.17—30.
39. Piternick, G. Library growth and academic qualit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24, N.3 (May 1963) p.223—229.
40. Trueswell, R.W. Determining in optimal number of volumes for a library's core collection. *Libri*, V.16, N.1 (1966) p.49—60.
41. Trueswell, R.W. Two characteristics of circulation and their effect on the implimentation of mechanized circulation control system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25 (1964) p.285—291.
42. Urquhart, J.A. and Schofield, J.L. Measuring readers' at the shelf in three univesity libraries. *Journal of Documentation.* V.28, N.4, p.233 —241.
43. Webb, W. Project CoEd : A university library collection evaluation and development Program.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13, N.4 (Fall 1969) p.457—462.

An Analytical Study on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of Research Library Collection

Soyoung Y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ing out the most reasonable and feasible evaluation methods of research library collection in Korea.

At the very outset, writer tried to define the purpose and the necessity of collection evaluation. Writer described a collection evaluation is to gain the data for decision making on selection policy, weeding and storage project, and explained it is one of the procedures of a collection development system operation of being explained as repeated three procedures through a collection development plan, an implementation of the set plan(selection process) and a collection evaluation.

Writer also pointed out the fact many libraries in Korea are apt to by pass or overlook this important process.

Writer then defined the criteria of a collection evaluation as the measurement of the proportion of library holding's capability to meet users' demands and that of the degree of total collection's utilization.

Writer introduced and analysed seven existing collection evaluation

* Librarian, Technical Information Division, Korea Advanced Energy Research Institute.

methods and concluded the method by a survey of users' needs and opinion and the method by a circulation survey are the most feasible and reasonable methods that can be applied.

Writer also added that using above two evaluation methods together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ollection evaluation.